

윤 대통령 “핵전력 한미 공동 기획·연습…미국도 긍정적”

신년 인터뷰 내용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필요

이상민 장관 책임론엔 선 그어

여의도에 윤핵관도 윤심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또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정치권 안팎의 파장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핵 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보여주기식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군사적 가치보다는 민심을 교란해 우리의 국가 시스템 작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소프트 테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 대해 “경제징용 등 현안이 풀리면 한일 정상 간 서를 방문 등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제기되는 이태원 참사 정무적 책임론에 대해선 “정무적인 책임

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 방안에 대해 “경찰국 예산안을 받아주면 야당에서 원하는 지역상품권 예산을 많이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문제 삼았다.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다. 대화가 참 어렵다”면서도 “일단 여야가 자주 대화하도록 하고 국회의장단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는 이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라면서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매섭게 심판하겠나. 정치 보복이란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내 ‘윤심’ 논란에 대해 “결국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가장 잘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며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무슨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있고 윤심이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에 대해선 “당 대표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라며 “한 장관과 통화할 때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을 전제로, 부동산 연속락을 위해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낙하산을 매달아줘야 한다”며 “새해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 (대출, 세금 같은)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라며 “대통령이 못 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좀 도와달라는 곳이 많더라”고 했다. 또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며 “저녁에 귀가해보면 그날 일정이 많아 고단해하면서 지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 지휘권 배제라는 식의 망신까지 쥐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힘 당권주자들, 윤 대통령 만나고 일제히 ‘보수 심장’ TK 직행

오전 청와대 영빈관 신년인사회

오후 대구·경북 당심 구매 행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사실상 새해 첫 날인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일제히 ‘보수의 심장’ TK(대구·경북)로 향했다.

‘당원투표 비율 100%’로 진행된 3·8 차기 당 대표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당심(黨心) 구매 행보에도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는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들과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명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원들이 뽑는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윤심(尹心)’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권주자들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임을 부각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신년인사회는 주요 참석자 수만 200여명 규모로, 대통령과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권주자들은 오후에는 당 핵심 기반인 TK로 일제히 향한다. 대구 수성구 소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강당에서 열리는 ‘2023년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권성동·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영남권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작년 8월 기준 78만명)의 40%가 집중된 표밭으로, 새해 벽두부

터 당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과 지역 당협위원장,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가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에서는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김석기 사무총장(경북 경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김기현 의원은 앞서 잡힌 개인 면담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조경태 의원도 지역구인 부산시당 신년교례회 일정으로 얼굴을 보이지 못했다.

당권주자들은 저녁에 지역 언론이 주최하는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도 연이어 참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2%p 하락 40.0%

리얼미터 조사…부정 평가 57.2%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마지막 주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을 의뢰로 지난해 12월 26~30일(12월5주 차)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0%, 부정 평가는 57.2%로 각각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1.2%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올랐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부실 대응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2.6%p 오른 45.5%, 국민의힘은 1.8%p 하락한 39.2%로 각각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6.3%p로 3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

윤상현·안철수 ‘대표후보 수도권 출마’ 띄우기

친윤 주자 견제 공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론’에 안철수 의원이 공감한다고 화답하면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두 의원이 ‘수도권 당 대표론’을 전당대회 화두로 띄우고 나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부각하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영남권 당권주자 등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후보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

석이나 나온다.

안 의원은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 의원이 당 대표 후보 모두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전적으로 동의하고,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이 지난해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 대표 후보들은 수도권에 출마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화답이다.

윤 의원은 조경태 김기현 권성동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

한바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전일 수도권이다. 우리는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7석이다. 지난해 총선거의 패배는 수도권의 패배였다”며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으로 총 170석 이상 (승리)하려면,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명 승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당내 일각에서 당권주자들, ‘윤핵관’ 의원들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협치 출마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의원들이 함부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환자와 함께해온 52년

환자 중심의 인술로
심신의 온전한 치유를 선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합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201022-증-113067호]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 고객센터 1811-7474 • 홈페이지 hosp.chosun.ac.kr
• instagram.com/chosun_university_hospital / facebook.com/ChosunUniversityHospital

조선대학교치과병원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은 세계수준의 교육, 연구를 통한
의료기술의 향상과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 062)220-3800 홈페이지 http://dent.chosun.ac.kr